



연변을 길림 동부의 중요한 성장지역으로 구축

— 성당위 상무위원 연변주당위 서기 호가복 인터뷰

“습근평 총서기는 시종일관 백산송수(白山松水)를 마음에 두고 길림을 넘려하고 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선후로 4 차례나 길림을 시찰한 것은 길림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 길림 사업에 대한 각별한 지지, 길림 인민에 대한 총서기의 각별한 사랑을 충분히 구현하면서 길림 전면 진흥을 힘껏 지지한다는 당중앙의 강렬한 신호를 다시 한번 방출했다. 이는 길림 진흥 발전 로정에서 리정표적 의의가 있다.”

3월 1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는 ‘14.5’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고 ‘15.5’계획을 시작하는 해이다. 을력설 기간인 음력 정월 11일, 이런 특별한 시간대에 습근평 총서기는 다시 한번 친히 우리 성에 와서 성당위와 성정부의 사업보고를 전문 청취하고 중요 연설을 했으며 직접 ‘새봄의 첫 수입’을 했다. 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큰 고무를 받고 더욱 분발하게 했으며 더욱 큰 파스함을 느끼게 했다.

연변은 우리 나라의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이고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로서 우리 나라가 동북아를 대상으로 개방하고 협력하는 최전방이자 창구인바 전국과 전 성의 발전대국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우세를 발휘하고 담당 역할을 보여줄 것인가?

호가복은 이같이 말했다. 현재와 향후 한 시기 연변은 습근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에 모를 박고 고품

질 발전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며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는 이 주선을 단단히 틀어쥐고 연변의 자원천품(禀赋), 산업기반, 지역 특점과 비교 우세에 발붙이며 목표 방향과 문제 방향의 결합을 견지하고 장점강화와 단점보완의 결합을 견지하며 지지를 적극 쟁취하는 것과 내생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의 결합을 견지함으로써 길림 동부의 중요한 성장지역으로 힘써 구축할 것이다.

길림 동부의 중요한 성장지역으로 구축하려면 반드시 발력점과 돌파구를 정확히 찾고 중점을 돌파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도약을 이끌고 발전 속도, 발전의 질적 효과, 발전 후속력을 한층 더 제고시켜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연변은 력량을 집중하여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실물경제를 위주로 하고 제조업을 주체로 하며 산업기반 재창조와 산업 교체 승격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연초, 에너지광산, 방직복장, 장비제조 등 전통산업을 개조, 승격하며 의약, 인삼, 민족식품, 관광 등 특색 우세 산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주로를 적극 선점할 것이다. 양수에너지저장(抽水蓄能)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화동 외롱호, 둔화 타라하, 안도 대사하, 왕청전하 등 양수에너지발전소 대상을 추진함으로써 양수에너지산업집군을 구축할 것이다. 신형 에너지저장산업을 배치하고 가택(嘉泽) 에너지저장 배터리 등 대상의 생산 투입과 효과의 창출을 추진하며 도문철양성일(铁阳盛

日) 배터리 회수, 해체 및 하류 심층 가공 등 대상건설을 다그쳐 배터리 제조, 배터리 소재 부대, 배터리 해체 회수 리용 전 산업사슬을 형성할 것이다. 신소재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바 안도이라석(伊利石) 산업단지, 룡정현무암산업단지 등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룡정탄소섬유산업단지 등 대상의 조속한 현지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100 억급 신소재산업집군을 구축할 것이다. 혁신약품 발전의 최전방 분야를 겨냥하여 생물제약을 배치하고 발전시키도록 기업들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구트생물니아세틸아미드(生物烟酰胺), 오등생물원료(敖腾生物原料) 대상의 조속한 조업을 추진하고 켈레이생물제약(凯莱英生物制药) 등 대상의 진척을 다그쳐 전 성 생물약의 생산제조 고지를 구축할 것이다. 연길 의료미용 소도시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의 의료미용제품 제조, 의료미용봉사 등 선두 기업을 유치하며 의료미용제품 제조, 의료미용봉사, 기초의료, 의료미용 연구개발을 일체화한 산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고급 의료미용산업 집거지를 구축할 것이다.

동북아를 향한 개방협력의 ‘교두보’를 힘써 구축하고 훈춘해양경제발전시험구 건설을 개방 확대의 주요 엔진으로 삼고 종합보세, 시장구매, 호시무역, 현지가공시범점 등 정책을 충분히 운용하여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알루미늄유체 수입 리용, 청정에너지 수입 리용, 해산물 수입 가공, 브랜드 복장 가공 등 중점산업단지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국내의 자원을 유

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할 것이다. 연길-장백 중점개발개방시험구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연길시의 비교적 훌륭한 산업기반과 도문시와 룡정시 통상구들의 지역적 우세에 의거하여 생물제약, 다국전자상거래, 의료미용 건강양로, 문화관광 등 산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동북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구경제합작구, 신흥산업집결구, 친환경산업발전구, 문화관광경제구를 육성, 발전시킬 것이다.

연변은 또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를 건설하는 데 공을 들여 힘을 모아 연길공항 이전 건설 공사를 잘 틀어쥐고 상반기에 착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둔화-묵단강 고속철도와 연길-룡정-화룡-장백산에 이르는 고속철도 려객운수 전문 선로 대상건설을 서둘러 추진하고 삼백고속철, 둔백고속철, 묵할고속철, 묵수고속철과 서로 관통시킴으로써 동북동부지역 주요 도시 고속철의 직접적인 연결을 실현할 것이다. 훈춘-방천 고속도로 대상을 서둘러 실시하여 훈춘시와 방천, 권하통상구 사이의 편리한 연결을 실현할 것이다. 묵연고속도로의 료아령-왕청 구간 대상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북쪽으로 흑룡강을 연결하는 연변의 골간 도로를 개척함으로써 연변과 흑룡강 사이의 인파, 물류, 정보류의 고속 류동을 촉진할 것이다. G331 변경개방관광대통로를 서둘러 건설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경관의 길, 흥분부민의 길, 국방안전의 길을 힘써 건설할 것이다. / 길림일보

대표위원들의 풍채

채홍성대표 : 법규제도를 통해 연변 민족단결진보 업그레이드 촉진해야



최근 며칠 동안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3차 회의를 앞두고 연변주 당위원회 당조 서기이며 주임인 채홍성은 연길시 공원가도 원위사회구역에서 인대 대표, 대중들과의 좌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대 대표는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신성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기에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

습, 관철하는 것을 전국인대와 성, 주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법규를 락착하는 것과 결합시키고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할 데 관한 주당위의 결정을 락착하는 것과 결합시키며 민족구역자치제도를 락착하는 것과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결합시키고 민족단결진보 촉진 관련 법규의 계획 제정에 참여하는 것을 당면의 가장 중요한 대사로 삼고 사회 각계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모집함으로써 립법과 상위법이 일치하고 대중의 수요, 바람과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국기통계국:

2024년 국내총생산액 전년 대비 5.0% 성장, 인당 9.5만원 초과

국가통계국은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를 발표했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연간 국내총생산액(GDP)은 134조 9,084 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

1차산업의 부가가치는 9조 1,414 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성장하고 2차산업의 부가가치는 49조 2,087 억원으로 5.3% 성장했으며 3차산업의 부가가치는 76조 5,583 억원으로 5.0% 성장했다.

1차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 이고 2차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36.5%이며 3차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6.7%이다.

최종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액 성장을 2.2% 끌어올렸고 자본 형성 총액이 국내총생산액 성장을 1.3% 끌어올렸으며 화물 및 서비스의 순수출이 국내총생산액 성장을 1.5% 끌어올렸다.

분기별로 보면 국내총생산액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3%, 2분기에 4.7%, 3분기에 4.6%, 4분기에 5.4% 성장했다.

연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9만 5,749 원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다. 국민 총소득은 133조 9,672 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다. 전원 노동생산물은 1인당 17만 3,898 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

/ CCTV 넷

2024년

우리 나라 무비자 입국 외국인 연인원 두배로 증가

국가통계국이 2월 28일 발표한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4년에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연인수로 2,012만명으로 112.3% 증가했다.

공보에 따르면 2024년 입국관광객은 연인수로 1억 3,190만명으로 60.8% 증가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연인수로 2,694만명이고 향향, 오문과 대만 동포가 연인수로 1억 496만명이었다. 입국관광객은 도합 942억 달러를 소비, 77.8% 증가했다. 내지의 주민들은 연인수로 1억 4,589만명 출국했는데 그중 연인수로 1억 4,015만명이 사적인 일로 출국하고 향향, 오문과 대만에 연인수로 9,712

만명이 나갔다.

공보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관광객 인수는 연인수로 56억 2,000만명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그중에서 도시 주민의 국내 관광객 인수는 연인수로 43억 7,000만명으로 16.3% 증가하고 농촌 주민의 국내 관광객 인수는 12억 5,000만명으로 9.9% 증가했다. 국내 관광객의 여행 비용은 도합 5조 7,543 억원으로 17.1% 증가했다. 그중 도시 주민의 여행 비용이 도합 4조 9,293 억원으로 18.0% 증가하고 농촌 주민의 여행 비용이 8,250 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 신화사

G331 대상 길림 구간이 년내에 개통된다

최근 길림성교통운수청이 소집한 2025년 교통대상건설 제 1차 특별 추진회의에 따르면 올해 우리 성의 고속도로는 4개의 갱신 대상, 2개의 신규 착공 대상, 14개의 국가와 성 간선 갱신 대상, 5개의 신규 착공 대상이 있는데 년내에 G331 변경(沿边) 개방관광대통로 대상(이하 ‘G331 대상 길림 구간’)이 완공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송장, 백림, 장춘 도시권 서부환성도로, G331 대상 길림 구간 등 4개 대상의 33개 건설 공사가 이미 재가동되었고 인원 2,928명과 설비 2,809대가 투입되었다.

대상의 조기 착공 및 재개 효과와 확보하고 연간 목표 임무를 완

히 완수하기 위해 길림성교통운수청은 책임자가 담보하고 파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한시도 늦추지 않고 대상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갱신 대상에서 통제성 공사 시공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더욱 많은 물량을 형성했는데 총 1,468만립방미터를 매립하고 210만립방미터의 도로 기초와 2,404개의 말뚝 기초를 교체, 매립했으며 5,009미터의 터널 굴착작업을 진행하고 겨울철에 5만 8,000톤의 강철 재료와 106만립방미터의 사석을 비축했다. 2월 14일까지 백림, 송장 대상 터널 굴착과 장춘 도시권 서부환성도로 대상 굴착 등 26개 건설현장에서 이미 공사를 재개했고 조건을

갖춘 도로 구간과 건설현장들은 잇달아 공사를 재개해 3월말까지 공사가 전면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훈춘-방천, 왕청-료아령(老爷岭)의 새로 착공한 두개 고속도로 대상은 현재 앞당겨 전 단계 작업을 전개했는데 하루빨리 착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G331 대상 길림 구간은 년내 개통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사 진도를 전속 추진하고 있는바 터널 공사는 선달그름날과 정월 초하루 이틀만 휴식하면서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룡암터널, 룡평터널의 굴착과 립강휴게소의 매립공사를 기본상 중단하지 않았다. 2월 17일까지 282미터의 겨울철 터널 굴착작업을 진행

하고 립강휴게소는 5만 2,000립방미터를 매립했으며 전반 구간에 1억 7,000만원의 겨울 자재를 비축했다. 현재 이미 시공단위의 인력과 설비가 현장에 진입하도록 전면적으로 조직하고 서로 다른 공사가 교차하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작업 절차가 분명하고 고효율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길림성교통운수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괄적인 조를을 강화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교통대상건설 붐을 일으켜 전 성의 1분기 좋은 출발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교통의 힘을 기여할 것이다. / 길림일보



최근, 장춘시는 신민대가 력사 문화거리에 대한 보호승격 공사를 가동했는데 박물관 신축, 관광시설 갱신, 만행(慢行) 시스템 확충 등 조치를 통해 신민대가의 력사문화교육 기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애국주의교양, 관광, 근대사 문화 전시를 일체화한 종합문화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5년 6월 30일에 준공 개방된다. 장춘 신민대가의 총길이는 1,446미터로 2012년에 제 4진 중국 력사문화명거리로 선정되었다. / 손명관 류향휘 기자

